

방과후학교 · 지역사회 연계의식 강화

전북교육청,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단체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역과 함께하는 방과후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로 사교유비를 감감하

고, 도시지역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방과후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운영 대상은 문화·예술·체육 등 학생들의 감수성 향상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가진 단체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청소년수련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2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arterschool7@korea.kr)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

정해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 및 재료비, 운영비, 행사비 등 1개 단체당 3,0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운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7일 저작권 교육에 대한 공식 협약을 가졌다.

전북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 교육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생 교육 등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7일 오후 2시 김동원 총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 윤태용 원장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미나, 포럼 등을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또한 최신 IT 기술과 저작권

이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와 예술,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최근 들어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을 위한 이번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건강한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상업정보고 학생 국가직 공무원 3명 합격

전주상업정보고 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3명이 2019학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행정직 2명(이진·박은수), 회계직 1명(장지영)이다.

이들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공무원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학생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두고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에 입학해 꿈을 실현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필기시험부터 면접 준비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 줘서 공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3학년 재학생 중에 이미 우리은행 1명, 삼성화재 1명, 공사 공단 1차 합격자 4명이 있어 평생직장에 4년 먼저 취업하는 인재를 배출했다. 신병식 교장은 "취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공무원반·공기업(공채)반 등을 연중 운영해 학생들의 빠른 취업을 돕고 있다"면서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강점을 인식하고 많이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진



박은수



장지영



전주대학교가 6일 '제2회 pre-JOB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채용 제안서

전주대, 구직자거꾸로 채용 제안경진대회 '화제'

구직자가 직접 회사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긴 채용 제안서를 보내는 이색 경진대회가 열려 화제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6일 '제2회 pre-JOB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는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기업의 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다.

1차 면접을 통해 도내 청년 및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16팀(총 55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10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채용 제안서 구성을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재직자 멘토를 섭외했다.

총 14개 기업(대두식품, 장수물산, 디클래스, 소유브랜딩, 하이트진로하림 등) 실무자가 경진대회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그들과 함께 기업 탐방 및 멘토링을 통해 채용 제안서를 구체화했다.

본선 대회에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차별화된 직무역량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발표했으며, 경쟁을 통해 대상(상금 200만원) 1팀, 최우수상(상금 100만원) 1팀, 우수상(상금 70만원) 2팀, 장려상(50만원) 3팀, 참여상(20만

원) 9팀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입장팀(팀장 김현우)은 "기업 멘토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직접 부딪히며 하나씩 나아가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다"며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기였는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국철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작년보다 까다로운 조건에서 이뤄진 대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훌륭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그들의 모습이 더 기대됐다"며 "앞으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